

보도해명자료 (19. 2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LNG 발전량만을 근거로 한 미세먼지·온실가스 영향 분석은 석탄발전 영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

(조선일보 2.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전력생산에 따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에너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, LNG 발전량만을 근거로 한 미세먼지·온실가스 영향 분석은 석탄발전 영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
- ◇ 아울러,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에 따라 '30년까지 전력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'17년 대비 약 62% 감축될 전망
- ◇ 2월 25일 조선일보, <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걸어진다 >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정부가 원전 대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'29년 LNG 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 것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LNG 발전량만을 근거로 한 미세먼지·온실가스 영향 분석은 석탄발전 감축 영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
 - 에너지전환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장기적 변화의 과정으로, 전력생산에 따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해야 하는 사항
 -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, LNG, 유류 등 화력발전량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석탄발전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데, 동 분석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음
 - 입법조사처가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“특정 발전연료를 분리하여 배출량을 추계하는 것은 이례적이며, 여러 연료를 혼합하여 발전을 하는 점을 고려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
- 8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따르면 '30년까지 전력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'17년 대비 약 62% 감축되고, 온실가스는 약 10% 감축될 전망
 - 이는 환경급전, 석탄발전의 LNG 연료전환 및 환경설비 보강 등을 통해 석탄발전량과 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했기 때문
 - 또한, 원전발전량 비중이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영향도 큼

<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·온실가스 전망>

	원전	석탄	LNG	신재생	기타	미세먼지	온실가스
'17년 (실적)	26.8%	43.1%	22.2%	5.6%	2.3%	3.4만톤	2.63억톤 (16년)
'30년 (8차 계획)	23.9%	36.1%	18.8%	20.0%	1.2%	1.3만톤 (62%↓)	2.37억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 장(044-203-5240)
권순목 서기관(044-203-5242)
장지혜 사무관(044-203-5246)